

'05-06 岳友

[Top Page](#) | [CNUAC Main](#) | [Admin](#)

열네번째 악우

'05-06 岳友

* 첫 월출산산행을 다녀와서

*Recent Articles

[하계 보고서](#)[춘계훈련등반을 다녀와서](#)[첫 월출산산행을 다녀와서](#)

49기 문석민

*Recent Replies

*Recent Trackbacks

*Favorite Link

[Get RSS](#) [Page XML](#) [RSS2.0](#)Powered By [TatterTools](#)

<< 2016 Jul >>

S	M	T	W	T	F	S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 분류 전체보기 (3)

G 인사말 (0)

G **문예수필**

상반기 (3)

후반기 (0)

G 문예수필 (0)

G 후기 (0)

2005년 07월

2005년 05월

2005년 04월

4월 1일(금) ~ 4월 3일(일)

일주일이 설레임으로 들떠 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임이다. 할매바위 갔을때 느끼고 배운 것이 많아서 매일 운동하다 시피 틈틈이 준비는 해 왔었지만 시루봉은 나에게 완전히 색다른 경험이었다. 암벽은 홀더만 잡는 식만 있는줄 알았는데 다리힘만으로 균형을 잡아가며 바위표면의 갈라진 미세한 틈을 손톱으로 지탱해 가며.. 올라 갔던 시루봉 A코스. 손가락 끝이 얼얼했다. 피곤했다. 손톱이 깨져서 쓰라렸다. 하지만 너무 재미 있었다. 완등을 했기 때문이다. 회가와 산가는 나에게 힘을 준다. 가사도 맘에 든다. 할매바위는 잠을 만한 홀더가 많다는걸 새삼 느낀다.

Total : 4968

Yesterday : 9

Today : 8



정말 즐거운 산행이었다. 여섯 번 정도 왔었던 월출산 이었는데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 줄은 이제야 알았다. 월출산도 맘에 든다. 저녁밥은 최고였다. 제육볶음, 카레, 김치찌개, 김 .지포, 오렌지, 무근지 산행에서 이 저녁밥이 최후의 만찬일 듯 싶다.

가끔 군대 생각이 나서 힘들었다. 군가 못 외운다고 끌고 갔던.... 토할 것 같다.

이번 산행의 아쉬움점은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점.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선영이 누나만 고생이 많았다. 재국이 형은 완전 말년 병장이다. 할수 없다. 그는 대장이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개인 플레이가 많았던 것 같다. 다음 산행때 부터 좀 더 체계적인 효율적인. 준비단계 였으면 한다. 무사히 산행을 마쳐 감사한다.

보고서 - 상반기 | 05/04/01 00:00 | 관련글(트랙백) | 댓글

TB_ADD : <http://icnuac.net/blog/cnuac2006/rserver.php?mode=tb&sl=4>

이름 : 비밀번호 :

홈페이지 :

☐ 비밀글로 등록

OK

prev 1 2 3 next

↑top

'05-06 岳友

[Top Page](#) | [CNUAC Main](#) | [Admin](#)

열네번째 악우

'05-06 岳友

<< 2016 Jul >>

S	M	T	W	T	F	S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 분류 전체보기 (3)

G 인사말 (0)

G **문예수필** (1)

G 상반기 (3)

G 하반기 (0)

G 문예수필 (0)

G 후기 (0)

2005년 07월

2005년 05월

2005년 04월

Total : 4968

Yesterday : 9

Today : 8

* 춘계훈련등반을 다녀와서

*Recent Articles

[하계 보고서](#)[춘계훈련등반을 다녀와서](#)[첫 월출산행을 다녀와서](#)

49기 문석민

*Recent Replies

*Recent Trackbacks

*Favorite Link

[Get RSS Page XML RSS2.0](#)

Powered By TatterTools



5월 12일(목) ~ 5월 15일(일)

그나마 하나 있는 동기생 마저 이번 춘계 등반을 가지 않아 나 혼자만 신입생 등반을 하게 되어 아쉽고 걱정부터 앞섰다.

역시나 ㅠ.ㅠ

나는 산행 할때 등반인이 적을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 했었는데 그건 큰 착각이었다. 힘 이들때 그 만큼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것 같다. 산가 외출때도 좀 더 힘차게 즐겁게 자연스럽게 외워지지 않았을까. 동기 없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얼마나 외로울꼬! 하지만 나에겐 잘생긴 재국이형과 무쇠같은 선영이 누나가 있다. 첫 훈련등반이라 미소한 무게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난 닥치는 대로 가방에 이것저것 넣었다. 심지어는 심심할까봐, 노트북도 가져 갔었다. 코믹, 액션, 드라마 3편의 장르로 나누어 자막까지 확인하고 가져갔지만 고생만 죽도록하고 노트북 한번 켜보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 미친 짓이다. 하지만 1학년이었기에 이런 추억을 만들지 않았을까.. 들뜬 기분으로 광주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장성 사거리에 40분만에 도착했다. 오후 20:00 수낭에 물을 채우기 전까진 그래도 즐거웠다고 말하고 싶다. 양고 살찐까지 버스가 없다는 걸 알고 할수 없이 요금 7000원을 내고 택시 타고 가야 했다. 방장산 자연휴양림을 넘어 전북 경계선에서 내려 도로따라 걷더니 느닷없이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무서웠다. 이상한 소리를 내며 무엇인가 우리를 따라 오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위치는 모르지만 전신주 아래에서 막영을 하게 되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술병을 기울이며 산행반성을 하고 노트북을 한번 어루 만져주고 나서 (아침 02:00쯤)잠들었다.



다음날은 정말 힘들었다. 난 길을 따라 등반하는 줄만 알았는데.. 무작정 오르고 또 오르고 내려가서 다시 오르고, 미칠 것 같았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꿀맛이었다. 아무 생각없이 발을 질질 끌며 따라갔다. 산 아래 민가만 보여도 반가웠다.

점심시간엔 오이냉국에 토마토를 맛나게 먹고 또 다시 산속으로 들어갔다. 날씨가 더워서 인지 쉽게 피졌다. 드디어 문수산 정상에 올랐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시원스러웠다. 정상에 오르는 이유가 달콤한 토마토를 먹기 위해서가 아닐까. 달콤함은 잠시뿐 또 다시 오르고 내려오고 이젠 집에 가소 싶은 생각 뿐이었다. 오후 16:00정도에 산길을 잃어버린걸로 기억한다. 재국이형과 선영이 누나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길을 찾아 헤매었다. 오후 19:00 날은 어두워져만 가는데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하고 야간산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우리는 산의 소방길을 따라 2시간 가량 걸었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지만 고도가 조금씩 낮아짐을 느끼고 유일한 방법이란 생각에 무작정 따라 걸었다. 드디어 불빛이 보이고 자동차 소리가 들린다. 아! 이제는 살았구나. 한숨이 쉬어진다. 불빛을 쫓아 갔더니 폐가를 지나 채석장에 도착하였다. 현주누나와 연락을 주고 받아 하통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현주누나는 우리를 몹시 걱정하셨는지 직접 배웅하러 채석장까지 오셨다. 무지 반가웠다. 성필이 형과 재우형까지 오셨다. 난 할수없이 노트북을 넘겨 줄 수밖에 없었다. 내일 산행때 들어야 할 물병을 보고 난 영화 보기를 포기해야 했다. 아쉽진 않았다. 오히려 시원했다. 그날 하루종일 노트북이 부서질까봐 노심초사 했기 때문이다.

현주누나가 맛있는 걸 많이 가져 오셨다. 소세지, 콜라, 파인애플, 등 역시 우리 선배님!!

나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듯이 미리 준비를 해 오신 것이다. 콜라 원샷!!

이틀째 되는 날이다. 전날 힘들었던지 아침에 일어나기가 몹시 힘들었다. 감기 몸살에 걸린 것이다. 아침에 요가로 몸을 풀고 또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재우형이 잘못 갈켜준 바람에 힘들게 올라갔던 임도를 다시 내려와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성필이형이 노래를 시켰을땐 서슴없이 부르고 싶었다. 그냥 힘차게 부르고 싶었다. 점심시간 전까지 물을 마시지 말자는 대장의 훈련 계획에 모두들 아무말 하지 않고 등반을 하였지만 성필이 형만 불만이 많았다. 성필이 형 덕분에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물 대신 오렌지를 맛있게 먹었다.



가시 나무 때문에 짜증이었다. 일부러 가시나무 숲만 찾아서 산행을 하는 것 같았다. 가는데 마다 가시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다음 등반때 좀 더 두꺼운 바지와 긴 티셔츠를 입어야 겠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들어 모자의 끈도 자르고 싶었다. 조금이나마 무게를 덜어내고 싶었다. 구황산 정상에 올라섰을때 고창이 한눈에 들어 왔었다. 사진을 몇장 찍고 아쉬움을 뒤로한채 마지막 능선을 가로 질러 종착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예상치 못한 산길이 있어 쉽게 하산 할 수가 있었다. 정말 천만 다행이었다. 종착지 도착 200미터전에 검푸른 산악을 불렀다. 음정이 엉망이어서 미치는 줄 알았다. 군가와 자꾸 헛갈리는 것이다. 선영이 누나에게 무지 미안했다. 현주누나가 맛있게 요리해준 부대찌개며 밀반찬에 우린 마지막 저녁밥을 푸짐하게 먹고 술잔을 기울이며 춘계훈련 마지막을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엔 일찍 광주에 가야했다. 전.조대 체육대회가 있어서 이다. 솔직히 이날 산행을 했더라면 쓰러졌을 것이다. 몸살 감기가 심해져서 무지 힘들었다. 예비역이라



말도 못하고 혼자 걱정 했었는데... 광주 영프라자에서 우린 칠량 모 초등학교로 이동하였다. 여러 선배님들을 볼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감기기운 때문에 체육활동을 하기 힘들었지만 왠지 참석해야 할 분위기에 난 허우적 거리며 뛰어 다녔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막같이 전수식이 있었다. 난 **의아한다**. 전수식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조출해서 일까. 선배님들의 아쉬운 표정에서 난 제대로 된 전수식의 의미를 알수가 있었다. 여야튼 오늘부로 모든 막같은 내 담당이 된것이다. 저녁밥은 내가 좋아하는 꽃게탕이었지만 감기 때문에 밥맛이 너무 없었다. 지금생각하면 남기고 온 꽃게 다가리가 아쉽다.

첫 훈련 등반 정말 동기가 없어 아쉽다. 무엇보다 다친데 없이 무사히 산행을 하여 다행이고 모두들 힘든 와중에도 즐겁게 산행을 한 것 같아 감사한다.

하계 훈련등반이 벌써부터 두려워 지지만 잘 해 낼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때까지 동기생이 한명이라도 생기길 바라며.....

이번 춘계 훈련등반을 접고자 한다.

2005. 5.25 클라이머 문석민

보고서 - 상반기 | 05/05/15 00:00 | [관련글\(트랙백\)](#) | [댓글](#)

TB_ADD : <http://icnuac.net/blog/cnuac2006/rserver.php?mode=tb&sl=5>

이름 :		비밀번호 :	
홈페이지 :	http://		
☐ 비밀글로 등록			
^ v			
OK			

prev 1 2 3 next

↑top

'05-06 岳友

[Top Page](#) | [CNUAC Main](#) | [Admin](#)

* 하계 보고서

*Recent Articles

하계 보고서
 춘계훈련등반을 다녀와서
 첫 월출산산을 다녀와서

48기 정선영

*Recent Replies

*Recent Trackbacks

*Favorite Link

Get RSS Page XML RSS2.0
 Powered By TatterTools

월간월간 악우

'05-06 岳友

<< 2016 Jul >>

S	M	T	W	T	F	S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T 분류 전체보기 (3)

-  인사말 (0)
-  보고서 (3)
-  문예수필 (0)
-  후기 (0)

2005년 07월

2005년 05월

2005년 04월

Total : 4968

Yesterday : 9

Today : 8

하계 첫째날

고대하고 고대하던 하계다.(이 문장은 직역보단 의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작년보다 규모가 많이 작아진 부식 간식등등의 장을 보고, 장비를 챙기고 1학년들에게 흥미?를 유발 시키기위해 노력도 하고, 하계 시작 전 일주일만 바빴다. 작년 하계 준비 할 때가 생각 난다. 그땐 하계가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추억을 남겨 줄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즐거웠다. (백치미가 아름답다는 말,,음 이해하기도 한다.——;원 소릴 하는 건지..)아무튼 이번에도 즐겁게 준비했다. 다만 후딱 끝낸 준비가 빠짐없이 잘 됐으려나 하는 것이 좀 걱정됐다. 하계가서 별 불편한 점은 없었기에 90%만족.

우리 종주의 시작점. 대관령으로 향하는 길 어깨는 가볍다.

용육이 형이 멋진 차로 우릴 그 곳 까지 옮겨주셨다. 비도오고 하는데 정말 고마웠다. 항상 고마우신 형이기에 더 더할 말이 없다. 감사합니다 형.



대관령의 시원한 바람은 우릴 향해 쏟아졌다. 우~ 시원한 바람, 꾸물꾸물 하늘——^ (비야, 내린 내리지 마라. 첫째날부터 비내리면 우울하다. 그러니 제발...) 첫 산행이 하계인 은미. 꺽꺽 배낭 메는 법부터 가르친다. 배낭이 빨리 가벼워졌으면 한다.

적당한 장소에 텐트를 친다. 모든 것이 처음

인 은미에게 자꾸 눈이 간다. 마치 3살짜리 어린아이가 처음 보는 물건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고 느리게 그렇게 텐트를 친다. (은미야, 하계가 끝나도 이러면 안돼~)텐트를 치면서 은미 하는 말(여기서 자는 거예요??)하하 웃음이 나온다. 이제 자신의 집보다? 그 리울 곳이 될 텐데.. 원래 처음은 이런 건가.. 석민이는 그래도 춘계며 이 산행 저 산행 따라 다녀 왔다고 조금 낫다. 짐 정리를 하고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왠지 멍~ 한 날이다. 술 덕에 정신이 없이 쓴 기록장에 딱 한 줄 쓰여져 있다. “너무 많이 먹었다——”

하계 2일

드디어 본격적인 산행이다. 아침을 먹지 않고 대관령 안내도 앞에서 사진 한 방 찍고 출발했다. 얼마 안 갔는데 은미 굉장히 힘들어한다. 결국 선자령 도착해서 쓰러지는 모습을 취해준다. 힘들다는 말이다. (그래도 어찌됐나. 가야지) 석민이는 은미가 힘들어

하고 좀 천천히 가니까 좋았을 것이다. 잘 따라온다. 작년 하계 때 내가 앞에서 안가고 버티면 재국이기도 좋았을거라는 생각이 퍼뜩 든다. 웬지 억울한..

날씨는 굉장히 좋았다. 푸른 목장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있고, 해가 구름에 가려 많이 덥지도 않고 시원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은 정말 평화 새가 없이 만든다. 하계 내내 생각한거지만 49기는 최상의 날씨에서 산행했다. 가장 힘들다는 첫날에 구름 꺼 주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 주고 하계에 빠질 수 없는 비도 딱 좋은 만큼 내리주고 너무 시원하지도 않게 햇볕도 쨍쨍 내리쬐 주고 몸이 한창 힘들 때 비가 내려서 하루 쉬기도 하고, 아무튼 복 받았다.

이 날은 선자령으로 해서 곤신봉을 거쳐 동해 전망대. 매봉까지 갔다.

동해 전망대에서 보이지 않는 ..저 곳 어디에 있을 동해를 생각 하며 한 박자 쉬고 매봉 가서 점심을 먹으며 설악시 한 자락 읊어 보기도 했다. 매봉이 기억에 남는 건 그 곳에서 마셨던 내 목을 땀 뚫어 버리던 캔맥주 때문이다. 그리고 웬지 월출산 매봉이 생각 나면서 뭔가 무시무시한 것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많이 했던 곳이다.

원래 막영지는 이곳 매봉이었지만, 은미와 석민이의 대단한 산행능력 덕에 조금 더 가서 목장 조금 위쪽에 막영하였다. 목장 쪽에 흐르는 성분불명의 물을 떠서 한 10분 올랐을 것이다.

이 곳에서의 막영, 별이 많이 있었나? 여하튼 멋진 밤이었고 멋진 하루였다.

하계 3일째

몸이 좀 피곤하다.

역시 하계는 하계다. 그래도 일학년 때 같이 사람이기를 포기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아침부터 은미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날씨도 좋고 길도 좋다. 은미야 웃어라 ^____^

소항병산-진고개-동대산 하계 3일 째 코스,

“소항병산 가는 길에 행운이 있다했다. 그 행운을 주워서 막걸리를 사 마시자했다. 막걸리를 마신 산악인이 또 하나의 팔빙수를 사 먹은 것 처럼 더위를 갈아 마시자 했다.” 소항병산 오름길에 재국이 돈을 주웠다. 맨 마지막에 오던 재국이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 난 맨 앞에 지도 보고 가고 있었고 그럼 은미랑 석민이는 정신이 잠깐 외출 했었을까.. 모르는 일이다. 소항병산에서 한 여름의 더위를 잊어본다. 노인봉 가는 길에 은미와 석민이 산악회 카달로그 사진도 찍고, 막영지가 금방이라는 생각을 하며 기분 좋게 산행을 했다. 그런데..노인봉 산장에서 잠깐의 실수를 했다. 제대로 온 길인데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해서 뺄을 해서 이상한 길로 접어 든 것이다. 한 20분 가다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뺄을 했다. 이것이 우리 하계에서 유일 back이었다. 워낙 길이 좋아나서 어디로 빠질 수도 없는 우리의 백두대간이다. 진고개로 내려서는 길 내리막 길이 길고 지루하다. 일 학년들 기운이 없어 보인다. 산그늘에서 벗어나 진고개로 가는 길, 땀별 아래 소로는 유난히도 길어보인다. 푸석푸석 흙먼지가 호흡을 방해하는 것 같다. 결국 은미 울음을 터트리고 만다. (울지마) 은미는 울면서 계속해서 안 울고 싶는데 눈물이 나온다고 한다. 그 맘 내가 이해해 그러니까 울지마—

그렇게 한 바탕 울고 진고개에 도착해서 팔빙수 먹었다. 은미 울음 똑!

석민이는 팔빙수 먹고 나서 죽어도 좋다고, 죽으면 안되지 그럼 쓰냐!

라면끓이는 시간에 막걸리에 감자전 먹었다. 지금도 침이 꿀꺽 넘어가는 그맛은 잊혀지지 않는다. 정말 산행 중 아니면 맛 보지 못할 시원함이다.

텐트도 말리고 우리의 땀으로 얼룩진 몸에 물도 좀 뿌려주고 진고개 휴게소에서 잘 쉬었다. 아쉬운 맘으로 그곳을 나와 동대산으로 향했다. 출입금지 구역 안내판 있는 곳을 비켜서 밭 있는 곳으로 해서 올랐다. 무시무시한 등고선 간격에 겁을 집어먹고 갔다. 한 번에 오백미터를 치고 올라야 하는 산, 그런데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올라가는데 비도오고 해서 천천히 꾸준히 오르다 보니 정상이었다. 마치 잘못을 저질러 놓고 꾸중 맛을 일만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는데 그냥 아무일 없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구름에 둘러싸인 동대산 꼭대기에 오르니 밤이다. 막영 장소를 물색하여 우리의 보금 자리를 찾고 넓진 않지만 포근한 우리의 보금 자리에서 밥을 먹고 술도 마셨다. 이어진 이미지 게임은 밤을 더 깊고 흥미롭게 만들었다.

하계4일째

왠지 모르게 산에만 오면 눈이 빨리 떠 진다. 아니 그보다는 밤 새 뒤척인다. 두 시간에 한 번씩 시계를 본다. 그러고도 몇일을 버티는 것이 신기하다.

이 날도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일어나 몸도 풀고 우리가 장던 장소도 한 바퀴 돌아본다. 저녁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곳.

또 짐을 정리하고 하루의 길을 떠난다.

두로봉->두로령->구룡령

두로봉 가는 길에 갈증이 난다. 전날 막영지에 물이 없어서 물조절하느라 물이 부족하다. 두로봉에서 한 숨 돌리며 마시는 수통뚜껑 만큼의 물. 물이 들어오자마자 몸 속 사방군데로 스며들어 금새 또 일어나는 갈증.. 산행 중 항상 느끼는 것은 물은 맛이 있다는 사실이다. 석민이도 애처롭게 그리고 아주 달콤하게 수통뚜껑에 있는 물을 마신다. 먼저 마신 나는 그 물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나 괴롭다. 석민이는 알면서도 소리를 낸다.음——^

두로봉은 동발이다. 그래서 동파리도 많다. 우린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났다. 두로령 쪽에서 올라오신 할아버지가 샘터가 있다고 가르쳐주셔서 그 물을 찾아 빨리 내려갔다. 왠지 벌써부터 갈증이 날아간듯 발걸음도 가볍다.

약15분 정도 내려오니 샘터다. 은미는 물 1.5리터를 마셔버리겠다고 장담한다. 음~어려울걸..결국 못 마셨다. 부족할 때 느끼는 그 느낌으로 새삼을 살아간다면 참 행복할 것 같단 생각을 한다. 두로령에 도착해 히치를 하려고 기다린다. 길은 비포장도로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트럭 같은 차는 보이지 않는다. 그 곳에서 은미와 석민이 설악시도 있고 간식도 먹으며 쉬고 있었다. 웬 꼬마에게 사탕과 간식을 조금 줬는데 잠시 후에 부모님이 내려와서 백두대간 이야기를 좀 나눈다. 음 산에 좀 다니셨나 보군..

그런데 그 가족이 가는 길에 우리에게 용돈하라고 이만원을 주신다. 우와 세상에, 처음 보는 우리에게 용돈을 주시다니. 산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보다. 왠지 모르지만 줘야 하는 끈 같은 존재. 우~감동(π.π)

계속되는 휴식.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차도 적고 태워주라고 하기에 작은 차들 뿐이다. 그렇게 계속 히치시도와 휴식을 계속하다 결국 잡았다. 그 분들도 역시 산악활동을 하던 분들이었다. 설악산 적벽을 얘기하시고 그 밖에 여러산들, 왠지 반갑고 웃는 얼굴이 된다. 구룡령으로 가는 도로까지 나왔다. 고마우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한 마디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구룡령으로 가는 길, 옆 쪽엔 계곡물이 시원해 보인다. 시원동하게 쳐다보다가 갈 줄 알았는데 결국 들어 갔다. 이런!오예!! (>0<)/

떡이 되어가는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빨래를 하고, 내가 꿈꾸던 클린한 나의 모습. 하~여기서 살고 싶어라.. 석민이 팬티만 입고 씻는 모습, 은미 텐트 플라이 속에서 꾸물꾸물 웃 갈아 입는 모습 생생하다. (근데 은미 정말 석민이 방향 안 보고 있었던거 맞아??)

정갈한 모습으로 히치를 했다.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은미 결국 히치하고 만다. 장발의 풍채 좋은 아저씨고 새련되 보이는 아줌마였는데, 성격도 쾌활 한듯 보였다. 그래서 우린 구룡령 휴게소에 골인~ 근영이형 만날 일만 남았다. 선진형은 못 오신단다. 우릴 즐겁게 해 주실 한분이 갑자기 하늘 위로 풍·사라져버렸다.음음. 그래도 근영이 형의 배낭 안엔 우릴 충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통닭이 가지런히 담긴 상자가 있었으니 이름 하야 복덩어리~ 구룡령에서 저녁 우린 파리를 열었다.

하계5일

전날 저녁에도 상상치 않던 하늘이 새벽부터 비를 뿌리기 시작한다. 텐트 안에서 빗소리를 듣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 이어서 산행해야하는 우리에게 후두둑거리며 쏟아지는 빗방울을 그다지 반갑지 않다. 갑자기 지난 산행이 생각난다. 일학년 춘계 때 비가 오면 산행은 당연히 안 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내심 좋아했었는데, 여기없이 출발했던 그때 춘계. 하물며 암벽 조차도 빗 속에서 헤치웠었다. 오들오들 떨었던 일학년 하계 매봉등반. 거침없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산행을 하리라고는 아마 은미도 상상하지 못 했을 것이다.

구룡령 구 휴게소 주차장에 텐트를 쳤었는데, 일어나서 짐을 정리하고 텐트를 걸어서 건물 쪽으로 가져갔다. 비를 피하면서 배낭을 싸는데 왠지 모를 기분이 나를 감쌌다.



폭풍우가 내리쳐도 목적지를 향해 한 발작 한 발작 내 딛어야 할 것 같은 운명 같은 것?
전쟁에 나가기 전에 느끼는 감정 같은 것이 었다.

구룡령->갈전곡봉->샘터삼거리->쇠나드리

목적지는 조침령이었지만 20km가 넘는 거리였고 비가 와서 조침령까지 가지 못했다.
정말 힘든 하루였다. 텐트는 물먹어서 과제중이 되버렸고, 배낭은 돌덩이로 변신해 있었다.――

우중에 계속되는 산행이 일학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런지, 은미도 석민이도 많이 힘들어한다. 이날은 내 몸이 지쳐서 인지 은미가 유난히 빨리 따라온다. 조금씩 꾸준히. 역시 은미의 몸 속엔 산악회회원의 끼가 무궁무진하다.

지도보고 걷다가 시간이 되면 간식 먹고 또 걷고,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그저 여기 어디겠거니 생각하며 또 걷는다. 조침령은 쉬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내 기억에 이날은 잿빛회색의 칼라가 지배적은 좀 우울한 날이 었다. 이 날이 하계 중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고 지쳤던 날이다.

내리막을 걷다보니 안부에 널찍한 자리가 나온다. 아직 쇠나드리는 아닐테고 어딜까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쇠나드리다. 웬지 헛게 씩워 진것 같다. 방위각으로 보면 아직 쇠나드리에 못 미쳤을 텐데 이정표엔 쇠나드리라고 떠억하니 쓰여 있다. 의외의 상황에 기쁘고 놀라웠다. 이 날은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 여하튼 우린 그 곳에서 텐트를 치고 10분 정도 내려가 물을 떠와서 밥을 지어 먹었다. 텐트는 역시 너무나 포근한 우리의 보금자리이다.

하계 6일째

쇠나드리->조침령->북암령->단목령

6일째 아침이다. 이번에도 텐트를 걷고 바로 출발한다. 선선한 아침온도가 참 좋다. 조침령 가는 길 여태 미뤄둔 숙제를 해치웠다. 일학년들에게 산가 가르치는 엄청난 숙제.ㅋㅋ
ㅋㅋ 검푸른 산악, 산 아가씨, 적막가

완전 엘리트들이다. 정말 외웠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르쳐 놓고 불러보라고 하면 정말이지 금방 다 외워서 불러 버린다. 우하하 이건 유능한 선생님 덕분이야. 음 하하 ,,,,,,,그런데 잘 나가던 탄탄대로49기 호가 적막가를 만나는 순간 무너졌다. 아무리 가르치고 가르쳐도 끝까지 제 멋대로 부른다. 이론이론 묵묵히 우리의 뒤를 지켜 주시던 근영이 형까지 나서게 만들었다. 적막가를 한 백번은 부르지 않았을까?? 정말 목이 아프더라.

지겹도록 수없이 적막가를 부르면서 조침령 도착. 이휘 여기가 출발지인데...물은 왼쪽 가파른 길을 따라내려가면 졸졸졸 물이 흐른다. 맛있게 밥을 먹는다. 한 바탕 산행을 한 뒤라 정말 꿀맛이다.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조침령을 출발했다. 능선이 완만해서 여기 저기 경치도 구경하고 다리가 편하였다.

단목령까지 내리막 길만 남았을 때, 이제 금방이라는 기대와 단목령 아저씨를 만나는 기대로 충만해서 계속해서 걸었다. 그런데 단목령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곳만 내려서면 단목령이 겐지.' 하고 생각하지만 여지 없이 빗겨난다. 그러기를 십여 차례, 그제서야 반가운 단목령 이정표가 보인다. 생각보다 너무나 길었던 내리막길. 금방 도착할 것이라 여기고 쉬지도 않고 내려온 까닭으로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 곳을 막영지로 정하고 텐트를 친다. 은미와 석민이 나는 밥을 짓고 근영이 형과 재국이는 단목령 아저씨를 모셔오기 위하여 내려간다. 단목령 아저씨는 어떤 분이 실까. 음음.. 한 시간 쯤 지나서 근영이 형과 재국이가 올라오는데 단목령 아저씨는 안 보인다. 음 우리보고 내려오라고 하신단다. 음음

그래서 길을 나섰다. 배낭을 안 메고 마실가는 듯한 가벼운 발걸음 오랜만이다. 음...좋다. 20여분 내려간 끝에 다다른 털보 아저씨네 집은 생각과는 달랐다. 완전히 자연과 동화되어 그렇게 살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 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 가기는 어려운가 보다. 털보 아저씨 사랑방에는 여러 가지 약초로 담근 술이 그득했다. 우우우~보기만 해도 쓰고 머리가 아프다. 그 곳에서 우린 술에 효소를 타서 먹었다. 술맛이 안 나서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해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마셔댔다. 술을 사리던 은미양도 효소의 힘을 빌려 쭈욱쭈욱 자알 들이 킨다. 감기가 걸려서 고생인데, 소주마시고 냉큼 떼어냈으면 했다. 우린 그렇게 한 잔씩? 하고 나서 비를 맞으며 단목령으로 향했다. 내리는 비를 맞으며 도착한 우리의 보금 자리에서 조금은 찼찼한 느낌을 받으며 잠이 들

었다.

하계 7일째

후두둑후두둑. 여전히 비는 계속 내리고 있다.

모두들 기척도 않고 잠을 잔다. 음 전날 술을 그리도 과도하게 마셨잖나?

몸도 찌뿌드드하고 비도오고 눈은 뻘데 막상 나가려니 감감하다. 화장실이 급해서 하는 수 없이 나갔다. 8시 정도 아침 산행하기에는 좀 늦은 시간이다. 은미는 눈치 보더니 하는 수 없이 일어난다. 집 아닌 다른 곳에 오면 잠을 잘 못 잔다는 은미는 항상 나보다 먼저 깨어 있지만 결코 나를 먼저 깨우거나 하진 않는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없다.

그렇게 모두들 굶뱅이처럼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비가 그치고 우리는 밥 먹을 준비를 한다. 음 근영이 형도 우리도 산행을 피하고 싶어하는 눈치다. 밥을 다 먹고 씻고 짐을 싸고 나니 12시다. 벌써 결론은 나 있다. 털보네 아저씨 집으로 출발~

가벼운 걸음인건지 무거운 걸음인건지, 우선 오늘 산행은 없지만 가야 할 길이 단축된 것이 아니라 미뤄진 것 뿐이다.

털보아저씨는 놀라신다. 음 좀 민망하다. 아무튼 우리는 하루 더 신세를 지게 되었다. 내려오는 길에 우리 하루동안의 예비일을 어떻게 보낼까 이리저리 고민하였다. 우선 씻고 빨래하고 옆에 냇가로 물놀이도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마쳤는데, 하늘은 어찌 그러시는지 비를 뿌린다. 옷도 못말리고 씻지도 못하고 털보 아저씨 방에서 잠만 잤다. 지루하고 느리고 어지러운 겨울 잠 같은 잠이었다.

근영이 형과 석민 군은 어제 우릴 찾아 삼만리 하다가 결국 하산하신 용주형을 데리러 한계령으로 갔다. 털보아저씨 봉봉이가 수고를 했다. 용주형 삼만리 후담이 길다. 우릴 찾아 오색에서 단목령으로 올라오는 길에 길이 희미해져 헤메다 결국 비오는 곳에서 비박을 하셨다고 한다. 잡목 사이를 반팔과 반바지로 지나오시고 힘든 몸이지만 우릴 위해 가지고 오신 수박과 과일을 끝까지 사수하셨다. 정신력의 승리다.

결국 우린 상봉했고 저녁이 되자 또 다시 술파티를 벌였다. 우우 우리의 예비일이 그렇게 지나갔다.

그날 그 곳에서 하릴 없이 앉아 있다가 정승권씨를 봤다. 나는 처음 듣는 이름 인데 암벽등반으로 꽤 유명하다고 한다. 음 어찌됐건 간에 영광이다. 그의 팔뚝은 그 말을 전해 듣기 전에도 뭔가 비범하지 않음을 느끼게 했다. 음음 잊혀지지 않는 그 팔뚝..

또 생각나는 건 맛있는 김치찌개다. 누가 김치를 들고 왔다는니 누가 마지막에 간을 봤다는니 자기가 마지막에 냄비를 날랐다는니 서로 자신의 공을 드높이려 야단이 었지만 그것도 김치찌개에 들어간 맛있는 조미료중 하나였다. 잊혀지지 않을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다시 한번 맛 보고 싶다.

보고서 - 상반기 | 05/07/28 00:00 | 관련글(트랙백) | 댓글

이름 :

비밀번호 :

홈페이지 :

☐ 비밀글로 등록

↑

↓

OK